

권정생 동화를 관통하는 민속적인 것들의 의미

이영배(안동대)

< 목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동화의 형식을 빌어 재창조한 민속 세계 |
| 2. 현실적 고통과 불행을 내파하는 무속적 해원과 상생 | 5. 맺는 말 |
| 3. 민속적 체험에 기초한 작가의식과 문학작 형상 |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권정생 동화¹⁾에 재현된 민속 즉 민속적인 것들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동화의 장르적 기원은 서구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근대 국민문학의 형성 속에서 지역적 이야기 전통이 재구성되어왔다는 점에서 민족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권정생의 동화는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히 근대적인 것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1) 권정생은 1969년에 『강아지똥』이 월간 『기독교교육』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당선되면서 작가활동을 시작했다. 그 이후 1971년에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가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 1973년 『무명저고리』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대략 그의 작품은 110여 편의 단편동화, 8권의 장편동화, 2편의 장편소설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시와 산문집이 있다.

갈등하며 생존해온 민속적인 것들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민속적인 것들은 실제 민속(또는 소재로서의 민속)이 아니라, 민속의 재현으로서, 동화 장르에 구현된 세계의 속성과 그곳에 서식하는 존재들의 성격과 지향, 그리고 작가의식과 그 저변에서 작용하고 있는 집합적인 심성과 기억의 흐름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민속적인 것들은 권정생 동화에서 단순한 소재로서 민속의 활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권정생의 동화에는 세부적인 민속의 범주(이를테면 세시 풍속, 민속신앙, 민속문화 등과 같은)가 뚜렷하게 현상하지 않고 작품의 구도 속에서 압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정생 동화의 민속에 대한 형식(/구조)주의적 분석은 유의미하지 않다. 특히 민속적인 것들의 동화적 재현은 고도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권정생의 동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의 결을 읽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의 시, 소설, 수필, 시평 등의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권정생이 쓴 동화와 소년 소설 등의 작품들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체념하는 평범한 대중의 정서가 마치 어린 아이의 울음과 웃음, 밤하늘의 별, 그리고 한밤을 건디고 풀잎에 맺힌 새벽이슬과 같은 투명한 존재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무수한 불운과 비극의 사건들 속에서 오로지 인고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공식 역사가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난·사랑·슬픔 등이, 그 곁에서 함께 살면서 길어 올린 맑은 샘물 같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동화가 아니다. 동화라는 장르를 빌어, 제자리를 지키며 운행하는 밤하늘의 별처럼, 숲한 범람과 메마름의 주기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강물과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게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땅거죽을 디밀고 올라와, 줄기와 가지를 뺀어 잎을 내고 꽃망울을 틔워 만개하여 또 다시 땅 속으로 저며 드는, '민속'을 소재로 하여 재창조한 조선 백성의 한 많은 역사요 문화이며 신앙의 보고이다.

그의 작품에 면면히 묻어나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도의 신앙이 아니다. 그의 동화 속에 깃든 신앙 전통은 기독교의 형식 속에 민속신앙의 본질이 체현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 형식을 내파하는 민속 신앙의 다원성이 고스란히 내장되어 있다. 단편 동화 『하느님의 눈물』, 장편동화 『밥데기 죽데기』,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등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절대지존의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한 기독교의 신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고난에 찬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그늘 속에, 그리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태적 순환계를 시는 ‘토끼’와 같은 존재들의 순결한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는 신이다. 모든 장소에, 모든 생명체에, 모든 사건 속에 경험적으로 내재하는 그런 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권정생에 대한 연구는 인간 존재의 소외 문제, 역사적 존재로서 민중의 한과 그것을 야기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기독교 주제의식의 바탕에서 민중적 삶을 묘사하는 문학적 힘의 문제 등을 단편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중주의적 관점, 기독교 사회주의적 관점, 자연/생태주의적 관점, 평화주의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권정생의 작가 세계와 문학 세계를 다루어왔다.²⁾

이 글은 아직까지 조명되지 않은 권정생 동화의 핵심이자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관통하는, 민속적인 것들에 주목하여, 권정생의 동화 속에 구현되고 있는, 민속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권정생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혹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파괴되는 마을공동체와 그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동화는 근원적으로 민속적 삶과 세계의 원리가 체험에 기초하여 구체화된 문학적 형상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조탑마을 주민들의 삶을 탐구하면서, 또는 지역의 생활 전통과 역사 의식에 바탕한 작가의식을 체계화하면서, 공식적인 역사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평범한 우리 어머니·누이·이웃의 삶을 현장의 언어로 일구어 내었다.

2. 현실적 고통과 불행을 내파하는 무속적 해원과 상생

권정생이 조탑마을에 자리 잡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식 작가가 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병을 얻어 돌아와 요양하다, 다시 마을을 떠나 유랑

2)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창비, 2011) 참조.

걸식하다 돌아온 뒤, 홀로 되어 혹은 그의 말처럼 자유롭게 되어 탑마을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작가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교회 결방에서 또는 마을 청년들이 ‘두레(비유적으로 그러나 원리상 유사한)’를 내어 지어준 빌뱅이 언덕 아래의 거처에서 힘없고 배운 것 없는 마을 아낙네들과 할머니들이 맘 놓고 자기들 사연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 마을 아낙네와 할머니들은 얽히고설킨 가슴 아픈 사연들, 억울하고 기막히고 한스런 사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에게 오는 자식들의 편지를 읽어주고 대신 답장을 써주는 일도 했다. 그의 말이다.

편지 대필을 하면서, 나는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의 집안 형편을 훑쳐보고 있었다. 거기엔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와 현실이 그대로 가장 정직하게 씌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권정생은 조탑마을에서 체험한 일, 몸소 겪어서 알게 된 농촌의 현실, 그리고 마을 노인들에게 들어 알게 된 많은 사연들을 토대로 그의 동화 세계를 펼쳐 보았다. 마을아낙네들과 할머니들의 애환과 곤궁을 함께 공감하여 풀어내고, 그들에게 불가능한, 그렇지만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동화에 담아내었다. 이 점이 권정생의 마을에서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동화 창작의 전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의 동화에는 마을 사회에서 맺은 인연의 그물망에서 길어 올린 언어와 인물들이 동화의 형식을 빌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펼쳐 보인 동화의 세계는 흡사 단골무당의 그것과 닮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골무당이 그의 단골들이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곤경과 갈등, 그리고 질병과 죽음 등의 문제를 함께 겪으며, 그렇게 공유한 문제들을 무가의 언어에 담아 의례로 풀어내는 무당굿의 구조와 같다. 단골무당과 그의 단골들이 그 의례를 통하여,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견고한 구조와 그 구조의 의례적 판본으로 무속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동화를 짓고 베푸는 이야기꾼이고 마을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웃는 경험 주체로서 삶의 언어를 조탁하여 구성한 동화 속의 인물이다.

조탑마을에 살면서 그 이웃들과 마주하며 동화를 지어낸 권정생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근대화 과정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의 고통, 가난과 질병이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조탑마을은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격전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이 많았다. 미군의 폭격도 대규모였고 민간인 학살과 부녀자 강간 같은 일들도 무척 많았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 비극을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권정생 또한 일체의 강점과 전쟁, 그리고 분단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다. 『사과나무발 달님』(창비, 1978)은 이러한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담아 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³⁾이다.

『사과나무발 달님』에서 권정생은 열일곱 어린 시절에 열병 앓이로 앓은뱅이가 되어 모진 세월을 살다가, “탑아, 네 가장 큰 소원이 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는 윗마을 할머니의 물음에 “보리밥이라도 한 번 실컷 먹어 보고 싶어요.”⁴⁾라고 말하고 닻새 뒤에 죽은 앓은뱅이 ‘탑이 할머니’와 같은 어눌하고 무시당했지만 저승보다 좋은 개똥밭 이승을 살아내었던 민중의 전형을 그려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집을 나간 뒤 실종된 남편 때문에 얼이 빠져버린 ‘안강댁 할머니’⁵⁾와 같은 인물, 식구들을 남겨두고 돈 벌러 혼자 일본으로 건너간 ‘공 아저씨’⁶⁾와 같은 구조적 이산의 문제, 억울하게 인민군 부역자로 몰린 탓에 공동묘지로 쫓겨나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둔 ‘파리골댁 할머니’⁷⁾, 인민군과 국군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 때문에 삶이 망가져버린 ‘돌쇠 아저씨’⁸⁾ 등과 같은 전쟁 트라우마의 문제, 문둥병에 걸려 식구들 몰래 집을 떠나야 했던 ‘해룡이 아저씨’⁹⁾와 같은 비정상적인 존재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존재들이 부수적이거나, 집단으로 기술되지 않고 한 시대의 구체적인 개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당한 자의 비극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존재들을 불러내어 역사적 생명을

3) 원종찬, 『속죄양 권정생』,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11, 107면.

4) 권정생, 『보리이삭 펠 때』,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14면.

5) 권정생, 『사과나무발 달님』,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25면.

6) 권정생, 『공아저씨』,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49면.

7) 권정생, 『파리골댁 할머니』,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81~82면.

8) 권정생, 『패랭이꽃』,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123면.

9) 권정생, 『해룡이』, 『사과나무발 달님』, 창비, 1978, 155면.

부여하였고 운명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당히 시대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똑심 있게 헤쳐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존재들의 슬픔이 해원되고 그 비극이 해소되어, 하늘이나 대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에서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거나 자기 존재의 의의나 사랑을 이룬 존재로 거듭난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동화, 『무명저고리와 엄마』(1973)에도 일제의 탄압과 수탈·독립운동·강제징용·동족상잔·월남참전 같은 역사적 사건들과 거기 얽힌 한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이 새겨져 있다. 작품의 주요 제재로서 드러나는 베틀과 저고리는 마을에서 사회와 역사로 확장되어가는 삶·시간·역사의 상징이다. 거기에는 지아비와 일꾼 자식들의 아픔을 껴안고 한 많은 일생을 살다 간 ‘엄마’에 대해 ‘막돌이’가 표현하는 절실한 그리움이 배어 있다. 특히 결말부에서 비극을 무지갯빛 환상으로 처리하여 엄마의 슬픈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장면은 한 맺힌 존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생에서 겹겹히 쌓인 고통을 풀어내어 온전히 저승으로 천도하는 길베, 그 아래 레테의 강을 넘어 용선을 타고 가는 씻겨진 냇의 형상이 담겨 있다.

물레 소리가 납니다...엄마 저고리 무명 베 울음이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한 엄마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따스게 바느질을 한 저고리입니다. 엄마 저고리는 엄마가 손수 물레를 갖고 베틀로 퐁퐁 짜서 지어 입은 옷입니다...엄마 저고리는 젓 냄새가 납니다. 복돌이 냄새...차돌이, 삼돌이의 코 흘린 냄새가 납니다. 베틀 소리와 함께, 아가들의 울음 소리가 무명 올마다 감겼습니다...저고리엔 셋째 놉 삼돌이가 부웅 떠올라 보였습니다. 일본 국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맨 삼돌이는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저고리엔 삼돌이가 끌려간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 물결이 씩아짜아 밀려왔습니다...큰분이 시집가는 꽃가마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허전한 엄마 가슴은 저고리 앞섶 속에 꼭 여미어져 있습니다...막돌이는 겨드랑이에 끼고 온 엄마 저고리를 산마루 청솔가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때가 묻은 저고리였습니다. 어깨관과 팔꿈치가 기워져 있었습니다...빗줄기는 폭포처럼 내리붓고, 바람이 기세를 부려 우우우우 불어왔습니다. 청솔가지가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서 엄마 저고리가 비에 젖어 펄펄 나무젖었습니다. 드디어는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올랐습니다...이윽고 소나기가 그치고 뭉게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기세를 부리며 불던 바람이 잠잠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저고리가 하늘 가운데 사뿐히

걸려 웃고름만 남실남실 나부꼈습니다. 해님이 구름 사이에서 눈부신 빛을 쏟아 내렸습니다. 엄마 저고리를 가운데 두고 무지개가 피어났습니다…한쪽 다리로 반 조각 땅을 딛고 선 막달이가, 무지개의 한 끝을 잡고 목화밭 위에 사뿐히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¹⁰⁾

이와 같이 권정생의 동화에는 삶의 내력이 촘촘하고 생생히 담겨 있고, 고통의 원인과 고난의 과정이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그 삶의 궤적 속에서 인고하는 못 생명들의 생동하는 의지가 죽음의 상태를 지나 상징적인 형용사로 재생되는 평화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거기에는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연의 원리를 감싸 안은 운명의 긍정이 있고, 사회구조의 비극적 모순이 뚜렷하게 인식되었으며, 인고의 의지를 통해 그리움이 도달되는 슬픈 승화의 어울림이 있다. 그 어울림은 한풀이이며 고틀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풀이들을 통해 해원과 상생을 이루는 서사적 짜임새가 패턴화되어 있다.

권정생의 동화는 구체적인 삶의 내력을 한올한올 펼쳐내는 사실적 동화요, 땅과 민중에 관한 이야기이요, 비극과 슬픔을 감싸 안는 환상적 동화라 할 수 있다. 그의 이야기에 그려지는 하늘과 별과 자연은 단순한 이야기의 배경이나 소재가 아니라, 민중의 꿈 이야기가 담긴 살아 있는 민속적 상징이자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권정생의 이야기는 그가 현실적으로 살아낸 조탑마을의 일상 속에서 함께 체험한 현장의 이야기이며, 자신의 삶이자 이웃의 삶의 곁 또는 중심에서 비극·가난·고통·기쁨·슬픔 등을 사실적인 언어와 환상적인 꿈으로 풀어내는 무당의 이야기와 닮아 있으며, 무당으로서의 동화작가의 이야기 즉 무당의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다. 즉 동화 속 인물이나 주인공들은 온갖 삶의 내력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억되지 못한,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이야기를 통해 그 존재들이 역사의 주인이나 제 삶의 주인으로 재현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발화자 혹은 창조자로서 권정생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재현하는 존재이며, 그러한 주변적인 존재들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는 서술자로서 존재하는, 동화의 무당이

10) 권정생, 『무명 저고리와 엄마』, 이오덕·권정생 외, 『흰둥이와 겹둥이』, 산하, 1995, 23~47면에서 부분 발췌하여 요약함.

다.11)

3. 민속적 체험에 기초한 작가의식과 문학적 형상

1937년 8월 18일, 일본 도쿄의 빈민가 시부야 하마가야 혼마찌에서 태어난 권정생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 공동체 혹은 가족의 이산離散을 체험한다. 이를테면 1944년 12월, 도쿄 폭격은 권정생이 살았던 빈민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권정생은 군마켄 쓰마고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하여 거기서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이 되자 그의 가족 일부는 일본에 남고, 일부는 후지오카로 잠깐 옮겼다가 1946년 귀국하였지만, 아버지는 안동 조탑마을로, 어머니와 그는 외가가 있는 청송으로 흩어져 갔다.¹²⁾

또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식구는 다시 그들이 살았던 공동체로부터 떠나 빨벌이 흩어져야 했고 서로 생사 확인조차 어려웠다. 권정생의 경우, 객지를 전전하다가 1955년 부산에서 재봉기상회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시절 그는 너무 고독했고 따뜻한 이웃이 그리웠다고 회고했다. 부산 시절, 고독과 슬픔과 그리움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 기훈의 죽음은 가히 절망적이었고, 일요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으로 가던 명자가 윤락가에서 웃음을 파는 아가씨가 된 사건은 모순투성이

11) 이러한 점은 『몽실 언니』에서도 발견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린 몽실의 가혹하고 비극적인 체험을 다룬 『몽실 언니』는 바리데기 무가나 심청가, 또는 공쥐팔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민중적 삶의 근대적 판본…현실 세계의 빈틈을 메워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셋김굿…억울했던 한 시대, 그 시대를 살아낸 비극적 인물에 바치는 진혼곡”(원종찬 엮음, 앞의 책, 2011, 124면)등으로 원종찬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

12) 권정생의 전기적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찬 엮음, 위의 책; 이원준, 『동화나라에 사는 종지기 아저씨, 권정생』, 작은씨앗, 2008; 김용락, 『빌뱅이언덕 밑 오두막에 살면서』, 『녹색평론』 95, 녹색평론사, 2007, 7~21면; 이계삼, 『이 땅 ‘마지막 한 사람’이었던 분』, 『녹색평론』 95, 녹색평론사, 2007, 22~41면 등 참조. 이하 권정생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 자료들을 참조했다.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들의 가엾은 운명을 절감하게 했다.

이 무렵 권정생은 평생의 병마와 맞닥뜨리게 된다. 병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났음에도 1년을 버티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버렸고, 늑막염에 폐결핵이 겹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1957년 2월, 집을 떠난 지 5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를 따라 조탑마을로 오게 된다. 당시 아버지는 남의 집 논밭 다섯 마지기로 소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 가고 있었다. 당시 마을엔 객지에서 병을 얻어 돌아와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읍내 보건소로 약을 받으러 다녔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투약을 한두 달 건너뛰기도 했다. 이러한 무질서한 투약은 병세를 점점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권정생을 제외하고 마을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 둘 시름시름 죽어갔다.

조탑마을에서 폐결핵에 걸린 동무 중 성태의 일화는 권정생의 삶과 글에 깊게 배인 비극적 정서가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성태라는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가사일을 돌보았다. 권정생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베를 짜고 있었다. 권정생에게 그녀는 장작개비처럼 가늘어진 허리에 부티끈을 졸라매고 힘겹게 내려치고 있는 형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는 왜 힘든 베를 짜고 있느냐는 권정생의 질문에 “품앗이 베야. 이런 거라도 해야만 마음이 편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희고 푸른 얼굴로 쓸쓸하게 웃었다. 당시 그녀의 가슴은 구멍이 나 있어 실새없이 고름이 흘렀다. 그런데 그녀는 들기름에 묻힌 솜으로 구멍을 막아가면서 일을 했다. 결국 22살의 나이로 1960년 겨울 그녀는 죽고 말았다.

마을의 결핵 환자들은 이와 같은 가난과 질병의 이중고 속에서 주립과 추위와 고독과 아픔에 시달리다가 운명의 발 앞에 쓰러져 갔다. 권정생의 병세 또한 폐결핵에서 신장, 방광 등 전신 결핵으로 악화되어 갔다. 권정생은 밤마다 교회당에 가서 밤을 지새우며 하느님께 눈물로 부르짖었고, 그의 어머니는 뒤꼍 뽕나무 아래서 밤마다 몰래 나가 기도했다. 산과 들로 나가 약초를 캐오고 매뚜기·뱀·개구리 등을 잡아왔다. 벌레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생명 가진 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어머니가 그 많은 개구리를 잡아 꺾질을 버기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권정생은 어머니가 가없다고 회상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간호와 그의 절절한 생의 의지가 담긴 기도 때문이었는지

그의 병세는 뜻밖에 호전되었다. 그러나 1964년 늦겨울 어머니는 고개 너머 저수지 공사에 일을 다녀오신 후 자리에 눕게 되고 결국 68세의 나이로 그의 곁을 떠났다. 염색한 군용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새끼 꼬나풀로 묶고 집을 나섰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회상하며 권정생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권정생은 1965년 4월 중순, 집을 떠나 잠시 기도원에 있게 된다. 거기에서 한 나병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은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린 성스러운 체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체험의 끝에서 구걸을 할 바엔 철저하게 거지가 되고자 결심하고 거지생활을 하게 된다. 그 시절 쓴 그의 시를 보자.

거지를 만나
우리는 하얀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가
나를 불행하다 말하기 싫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삶이란
처음도 나중도 없는
어울려 날아가는 티끌같이
바람이 된 것뿐입니다.
제마다가 그 바람을 안고
북으로 남으로 헤어집니다.
어디쯤 날아갔을까?
한참 다음에야
나를 아끼느라 그 거지 생각에
자꾸만 바람빛이
흐려왔습니다.

-「거지」 전문¹³⁾

거지가 되어 비로소 하얀 눈으로 마주선 존재, 불행을 빌미 삼아 감춘, 불행보다 슬픈 헤어짐 속에서 어울려 날아가는, 처음도 나중도 없는, 영원한 존재와 마주친다.

13) 권정생, 『오물덩이처럼 덩굴면서』, 『빌뱅이 언덕』, 창비, 2012, 38~39면.

그 마주침 후에 비로소 아니 그 순간을 뒤로 하고 다시 저마다 안고 가는 이별의 슬픔은 ‘나-거지’의 합일 속에서 완화된단다. 시대의 궁핍과 질병에 쫓겨 반복된 방랑은 거지가 되어, 비로소 조탑마을로, 집으로 향하게 된다. 3개월의 거지 생활 동안, 생명은 깡통에 밥을 꼭꼭 눌러 담아준 짐춘 조그만 식당집 이주머니의 온정의로 다가왔다. 가로수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두레박에다 물을 길어 헐레벌떡 달려와 먹여주던 할머니의 얼굴, 뺏았이 없다니까 그냥 강을 건너주던 뱃사공 할아버지의 얼굴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한 착한 마음으로 회상되고 있으며, 천국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거꾸로 보게 한 체험으로 회상되고 있다.

권정생의 이야기에는 그가 체험한 전쟁과 피난, 가족과 마을공동체의 해체, 뿌리없이 흔들리고 떠도는 삶과 존재에 대한 절실한 슬픔 등이 인물이나 서사 세계, 또는 제재와 배경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원하고 있다. 그러한 비극적 사건의 체험 속에서 맺어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웃 또는 친구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도 배여 있다.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과 생의 의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외중에,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회구가 이야기들의 구조 속에서 강렬하게 재체험되고 있다. 질병처럼 엄습한 사회와 역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통찰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내쳐진 존재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 등을 이야기의 형식 속에 되살려 놓았다. 그리하여 권정생의 이야기들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야기된, 자연과 공동체의 해체와 재편에 대한 비판이 물씬하게 담겨 있으며,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함도 배여 있다. 이러한 비판과 회복에의 강렬함은 동화의 배경과 인물, 그리고 서사의 전개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과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을 비춘다. 그 존재들은 이야기 속에서, 마치 밤하늘을 수놓아 어둠을 은은하게, 그렇지만 강렬하게 밝히는 거대한 성좌처럼 단단하게 결속하여 빛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마을사회와 그 주민들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권정생의 작지만 절절한 체험들이 바탕이 되어 쓰여진 동화로 『갑돌이와 갑순이』, 『강아지똥』을 거론할 수 있다. 명자와 기훈이 이야기는 『갑돌이와 갑순이』로 쓰였는데, 동화의 제목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별똥별』¹⁴⁾로 재탄생했다. 『강아지똥』(『기

14) 권정생, 『별똥별』,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1978, 87~108면.

『독교교육』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수상, 1969)은 보잘것없는 것에 붙여넣은 생명으로 재탄생했다.

『별똥별』은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또 다른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의 생애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은 그것을 야기한 세상과 격렬하게 부딪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친구 기훈의 죽음과 명자의 불행을 야기한 한국근현 대사의 격동, 특히 전쟁이 야기한 뿌리뽑힘과 고아의식, 그리고 가난과 결핍 등이 모티브가 되어 슬프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재탄생했다. 별똥별은 고향 마을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꿈꾸었던 온전한 세계의 상징이다. “살구꽃 가장이 매콤한 향내를 풍기던 초저녁 돌담 밑에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함께 세던 별”¹⁵⁾의 또 다른 현현이다.

별똥별은 하늘에서 대지 혹은 물 위로 하강한다. 하강함으로서 그것은 존재한다. 하늘을 상징하면서도 대지 혹은 물 위로 향하여 운동하는 존재. 그것이 떨어진 자리는 ‘달맞이산 너머, 커다란 못’이다. 고향을 상징하는 달맞이산을 매개로 만난 불과 물의 운동. 그것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인 셈이다. 따라서 별똥별은 하늘의 성좌 혹은 자연/우주의 상징이, 대지의 자리 즉 인간 세계와 합일하는 과정 속에서 발원하는 사랑의 표상이 된다. 이것은 낙하와 충돌의 부정성이 표면적으로 야기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의 표식 즉 별똥별의 자리에서, 사랑이 싹트고 완성되어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역동으로 긍정되고 있다.

우린 모두가 별들이야. 고향 마을에서 너와 함께 구경하던 밤하늘의 그 별똥별. 굵다랗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 사이에서 이름도 빛깔도 없이 움츠리며 살던 작은 별 그 드넓은 하늘 위에서도 몸들 곳이 없어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죽는 별똥별인 거야. 입술을 꼬옥 깨물고 떨어지는 그때 화약 일어나는 불꽃이 땅 위의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지. 순아, 나도 오늘 밤쯤 고향 달맞이산 너머 못 속에 빠져드는 별똥별이 될 거야. 그래서 한 마리 새가 되겠어. 고향 마을에 봄이 오면 살구꽃이 피고 그 살구꽃 눈부신 가지에 앉아 아름답게 우는 새가 될 거야. 새가 되었다더라도 난 고향에서 살고 싶어. 아름답게 울면서 오래오래 고향에서 살겠

15) 위의 글, 94면.

어…돌아, 용서해주겠니? 난 오늘 밤 별똥별이 되기로 했어. 그러나 난 나쁜 계집애기 때문에 고향의 달맞이산 너머 못물에 빠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네가 언젠가 고향이 없다고 얘기한 깊디깊은 바다로 온 거야. 하지만 돌이가 용서만 해주면, 나도 고향마을에 가고 싶어. 네가 새가 되어 날아와 울겠다는 살구꽃나무가 되고 싶구나. 그래서 널 기다리겠어. 너랑 같이 소꿉살림을 차렸던 그 돌담 양지면에, 나는 한 그루 살구꽃나무가 될게…¹⁶⁾

별똥별과 달맞이산의 만남은 갑돌이와 갑순이의 헤어짐과 죽음, 그리고 재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비극이라는 부정성과,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 한몸으로 영속하게 되는 서사의 복선이다. 위의 대목에서 편지 혹은 유언은 서로 헤어진 후, 죽음을 앞에 둔 갑돌이가 전하는 사랑의 언약이고, 이를 수신한 갑순이가 갑돌이와 함께 다시 살고픈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랑의 주술이다. 그들의 헤어짐은 한국근현대사의 질곡이 야기한 비극적 결과이었으므로, 죽어야만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죽음을 통과하여 재생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질곡의 역사를 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만 한다는 변혁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으리라. 이 죽음과 재생의 상징은 “고향마을에 봄이 와 봄바람을 타고 노란 금빛 날개를 저으며 한 마리의 새가 날아들고 양지바른 돌담 가에, 전에 없었던 살구나무 한 그루가 눈부시게 함박꽃을 피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정경을 창출한다. “노란 새가 그 살구꽃 가지에 안기듯 앉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어 푸른 하늘을 두들기고 엄마처럼 따뜻한 고향 들판으로 노란 새의 그 울음 소리가 치렁치렁 울려 퍼져가”¹⁷⁾는 영속적인 합일의 세계,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구나무와 노란새로 재생하여 재회하는 또 하나의 고향을 성좌로 재현한다.

나도 나쁜 짓을 했어. 여름…햇볕이 쨍쨍 쬐고 비는 오지 않고 해서…내가 가꾸던 아기 고추나무가 견디다 못해 말라 죽고 말았다…왜 불쌍한 아기 고추나무를 살려주지 못했는지…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습니다.¹⁸⁾

16) 위의 글, 104~107면.

17) 위의 글, 107~108면.

18) 권정생,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에서 부분 발췌하여 요약함.

강아지똥이나 밭에서 떨어져 나온 흙덩이는 쓸모 없는 존재이다. 아니 그 존재성마저 무의미한 존재의 파편이거나 생명의 몰락이다. 어쩌면 권정생의 이야기에서 추방된 존재의 상징으로 자주 출몰하는 문둥병·불구·불치병과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 불행 속에 있는 이웃이거나 친구, 혹은 그 자신이다. 그런데 『강아지똥』은 이러한 파편 혹은 몰락에 주목한다. 아니 생명을 부여하고 순환 속에서 그 존재성을 되살린다. 강아지똥에게 전하는 흙덩이의 말은 흡사 사회와 역사의 비극을 자신의 운명으로 순응하여 감내하는 존재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즉 “내가 살던 곳은 산 밑 따뜻한 양지, 거기서 야기 감자를 기르고 기장과 조도 가꾸었어. 여름에는 자줏빛과 하얀 감자꽃을 곱게 피우며 정말 즐거웠어…누구라도 죽는 일은 슬퍼. 더욱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괴롭이 더하단다…달구지에 치여 죽어 버릴지 모르는 운명”이라고 비하하는 흙덩이는 그저 세상에 던져져 궁핍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의 한탄이고 엄연한 현실 인식이다. 이러한 흙덩이의 숙명론은 강아지똥의 다른 존재되기를 좌절시키고 순응과 체념의 부정적 정서를 감염시킨다.

그러나 흙덩이가 저를 버린 사람과 환경에 의해 다시 발견되어 밭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통하여 흙덩이의 숙명론은 부정되고 만다. 그렇지만 그 부정의 부정은 강아지똥의 잠식된 영혼을 되살리지 못한다.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 수동적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아지똥이 그 존재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이룰 수 없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강아지똥은 민들레를 만남으로써 그러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민들레는 “너의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라고 말한다. 즉 강아지똥이 사라져야만 한다. 그래야 예쁜 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강아지똥의 예쁜 꽃 되기인 셈이다. 거기에 화답하여 강아지똥은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라고 화답한다. 강아지똥이 민들레와 접촉하여 “별처럼 고운 꽃”이 되는 이 과정이 강아지똥 이야기의 전부이다.

권정생의 이야기에는 한편으로 병든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고통, 그걸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줄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인식이 서려

있으면서도,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나누는 ‘어떤 바탕’을 소망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전쟁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주머니 혹은 어머니들의 희생에 대하여 고통과 궁핍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시각도 담겨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대에 어머니나 형, 그리고 언니의 희생과 헌신의 추모이자 반드시 복원되고 기려져야 하는 역사적 기억이다. 그러한 기억을 밀친 삼아, 그는 강아지똥이 거름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성좌를 그려내고 있다.

『몽실 언니』 역시, 마을에 구두수선하는 꼬추 아저씨의 아내 이야기, 대구에서 숯장사 하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빛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며, 그러한 존재들이 이룬 삶과 역사의 성좌가 집대성된 『한티재 하늘』도 그러하다. 『한티재 하늘』의 이야기는 여러 마을어른들에게 물어 물어서 썼다고 전한다. 권정생은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탐문했다 한다. 일제강점기 징용에도 끌려가고 신작로 공사장에도 끌려가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그는 주목했다. 이를테면 “살구나무재 넘어가면 지리산처럼 아주 깊은 산이 있는데, 거기 숨어 살던 어른이 하나 있었다. 동학전쟁에 참여했던 어른이다. ‘뽕란구이’, 빨치산이 아니라 동학전쟁 하던 옛날 뽕란구이였다. 신돌석 장군하고 이어지는 뽕란구이 하다가 숨어 살았는데, 6·25 전쟁 때 그쪽으로 가면서 한 번 보았다. 해방 이후 숨어살지 않고 자리 잡고 살았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구유도 만들고 지게도 만들어서 장에 나가 팔고 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드는 역사나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삶의 궤적을 복원하여 역사의 성좌로 그려내었다. 권정생이 말하길, 그 성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지 않는다. 인공물, 혹은 문명이 파괴하는 자연으로서, 전쟁이 파괴하고 해체한 공동체나 가족으로서, 그러한 파괴와 죽음의 세계 속에서 약화된 민속적 삶과 세계로서 그의 성좌는 생의 끝에서 토해낸 다음과 같은 유언으로 되새겨지고 있다. 즉 “이건(곳집 가까운 곳에 지어진 권정생의 집) 땅주인이 따로 있으니 전부 자연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무슨 인공물이 세워지면 안 된다. 처음대로 풀밭으로 되어야 한다.”

갈등은 존재의 거리를 나타내고, 화해는 존재의 전이·합일·재탄생을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은 세계의 재창조 즉 이야기의 서사 세계는 서로의 정체성이 교통하는 상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체로서 집합적인 소통을 이루어내고 그 거리를 통해 어울림의 구조를 조성하여 한 무리로서 빛을 발하는 역사의 저편과 이편 즉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성좌를 그려내었다.

4. 동화의 형식을 빌어 재창조한 민속 세계

『무명저고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민요가 실려 있는 대목이 있다.

고갯마루에 일곱 아가들이 손잡고, 동산에 떠오르는 달님을 쳐다보며 노래를 부릅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초가삼간 지어 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지고.

-『달타령』

죽음에 임박하여 고난과 격동의 세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한국전쟁·월남과 병으로 이어지는 강탈과 이별, 그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잃어버린 자식들을 어머니가 환상 속에서 마주하는 장면이다. 민요는 개인의 체험과 서정이 강한 경우에도 공식구와 함께 일정하게 유형화된 노래이다. 그래서 그것은 계층성과 집단성을 반영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사실 가사의 의미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부르는 상황이나 맥락적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시 말해 노랫말의 어의에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 그 노래가 불려지는 상황과 사람, 시대의 정황 속에서 주관적 의미를 생성한다. 따라서 맥락적 의미 구현이라는

점에서 권정생 구전 민요의 삽입과 그 사용은 주목된다. 무명저고리에 실린 이 민요는 가사가 전달하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혹은 향토적이고 교훈적인 의미의 표층 너머를 지향하고 있다. 즉 무명저고리를 통해 주변적인 존재들의 역사를 담아내었듯이, 근대적 문학 형식을 빈, 이 민요의 동화적 재현을 통해 그러한 서술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꾼으로서 권정생은 민속신앙이 지향하는 신과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신앙의 틀 안에서, 혹은 그 바깥에서 재창조하였다. 먼저 체험의 배경을 보자. 권정생이 기독교신앙을 처음 접한 것은 5살 무렵으로 전해진다. 일본 도쿄의 빈민가 시부야에서 살고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일요학교에 대한 누나들의 대화를 통해서이다. 그는 누나들의 대화 속에서 옷을 벗고 알몸뚱이가 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머리엔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얼굴에 피가 줄줄,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이 일화 속에 나타난 신앙 체험은 사후적 기억 혹은 해석으로서 삶의 과정에서 강화된 기억으로 보인다. 특히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고난받는 민중의 표상이거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토속적이고 원형적인 마을공동체의 세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권정생은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종로서적, 1986)에서 그 최초 체험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핏기 없는 검푸른 얼굴에 붉은 피를 흘리며 공중에 높이 매달린 남자가 무섭기보다 측은하게 여겨졌다고 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뒤꼍 뽕나무 아래서 밤마다 몰래 나가 기도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산과 들로 나가서 약초를 캐 오시고 메뚜기를 잡아 오셨다. 뱀도 잡아 오시고 개구리도 잡아 오셨다. 아마 어머니가 잡아 오신 개구리는 수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길 잃은 양처럼 떠나간 청년을 생각하니 이 넓은 기도원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 분명히 문둥이 청년을 따라 가 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기도원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내가 다섯 살 때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거듭나는 과정은 아마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인간스럽게 사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예수는...생명존중의 종교로 바꿔놓은 것이다. 그는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고, 떠돌아다니는 새들도 하느님이 기르신다는 자연과의 공생 관계를 가르쳤다. 복음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까지 두루 내려진 것이다.¹⁹⁾

권정생의 기독교 신앙은 어머니가 마을공동체의 신앙 전통과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민속신앙의 정서와 교감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미신적이라 업수이 여기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살아 있는,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한 신앙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의 신앙은 그저 관념 속에 머물거나 의례로 그치지 않는, 생활과 자연에 긴밀하게 연결된 살아 있는 실체였다. 뒤꼍 뽕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산과 들의 못 생명들에 그 정성을 담아, 생명을 대상화하여 그냥 포식하기 위해 기르거나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생명을 보살피고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신앙이었다. 그러한 어머니의 신앙은 권정생의 기독교 신앙에 중첩되어 그 신앙을 일신한다. 즉 문둥이 청년과 함께 하며 그를 돌보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의 종교로 거듭난다. 또한 자연과 공생하며 모든 생명을 위하는 생활 속의 거룩한 신앙으로 나타난다. 그의 신앙은 “참새나 제비는 절대 공짜로 사람 사는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닌 것이다. 목숨이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고 아침저녁 재잘대며 노래까지 불러 준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초가집의 생태 환경은 그대로 한 권의 생명 교과서다.”라는 말과, “우리는 여태까지 자연에서 너무 많이 빼앗아 왔다. 이제는 그 자연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차례가 아닌가.”²⁰⁾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삶에 온전히 녹아져 사람과 사회,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권정생의 민속적 기독교 신앙 혹은 그리스도교라는 근대 종교의 형식을 내파하는 생명신앙은 『하느님의 눈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에 잘 드러나 있다. “보리수 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사는” 하느님처럼 살고 싶은 돌이 토끼에게 하느님은 “아직은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19) 권정생, 『빌뱅이 언덕』, 창비, 2012, 29, 36, 45, 46, 167면.

20) 위의 책, 106, 108면.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를 써 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라고 탄식한다. 동화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돌이 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느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²¹⁾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에 등장하는 하느님 혹은 예수는 전지전능한 유일신, 그래서 서구 문명의 힘을 예찬하고 자연의 대상화(관리 혹은 파괴)를 당연시하는 배타적 신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하느님은 “어린이들만 살려” 줄까, “산동네 달동네, 노동자, 농민들만 살려 줄까”라고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다. 또 복잡한 도시 서울을 떠나 산골 깊숙이 들어가 조용하고 따뜻한 게 살고 싶어 한다. 한가위 앞날 밤늦게 송편을 빚고 전쟁으로 인해 혼자가 된 할머니와 고아 소녀와 함께 한식구를 이루고 산다. 전쟁을 반대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비판한다. 차례상에 술잔을 따라 올리고 절도 하고 단풍놀이도 가며, 가족이 걱정한다며 산책을 나갔다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우리네 삶, 바로 거기에 함께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²²⁾

권정생의 민속적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세상 혹은 교회 공동체는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거기다 신비주의까지 밀려와서 인간상실의 역할을 단단히 한”,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차별이 생기고…인격적 차이…평신도 들까지도” “하느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 전부”가 된 기독교가 아니다. 그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아래에 인용하는 그의 말에서 확인되듯,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좀 더 평등하고 친밀해진 민속 세계의 모습을 닮아 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뽕죽탑에 십자가도 없애고 우리 정서에 맞는 오두막 같은 집을 짓겠다. 물론 집안 넓이는 사람이 천명에서 백명쯤 앉을 수 있는 크기는 되어야겠지. 정면에 보이는 강단 같은 거추장스런 것도 없이 그냥 맨마루바닥이면 되고 여럿이 둘러앉아 세상살이 얘기를 나누는 예배면 된다. ○○교회라는 간판도 안붙이고 꼭 무슨 이름이 필요하다면 ‘까치네 집’이라든가 ‘심청이네 집’이라든가 ‘망이네 집’ 같은 걸로 하면 되겠지. 함께 모여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21)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1, 15~18면.

22) 권정생,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산하, 1994, 132, 139, 180, 202면.

하고, 가끔씩은 가까운 절간의 스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점쟁이 할머니도 모셔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마을 서당 훈장님 같은 분께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듣고, 단오날이나 풋갈 같은 날엔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담그고 해서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궂은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²³⁾

이처럼 기독교라는 근대적인 형식을 전유한 그의 민속 세계는 그렇지 못한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도 나타나고,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그가 꿈꾸는 마을공동체의 이상을 이루려는 동화적 상상의 세계로도 구상된다. 『금복이네 자두나무』²⁴⁾는 가난한 농민의 소망을 여지없이 짓밟는 지주의 횡포를 드러내었다. 금복이 아버지는 마을에 큰길에 새로 날 것을 아는 최주사에게 속아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최 주사네 밭 한 뼨을 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다. ‘새마을운동’이 이른 경제적 이면을 보지 못하고, 농촌 들녘에 울려 퍼지는 희망가인 양 오인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권정생은 농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농민의 현실 삶의 동화적 재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는 새앙쥐와 함께 기거하며 대화²⁵⁾하는 일상을 창출하여 모든 존재가 살아 교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도 하고, 오솔길에 생명을 부여하여 아이의 슬픈 운명에 공감²⁶⁾하는 즉 자연과 사람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작용하는 온전한 세계를 꿈꾸기도 했다. 또한 “들판 가득히 자줏빛의 햇살이 날고 있는 사이로… 짙레나무의 빨간 열매들이 시를 읊듯이 합창” 하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온돌방… 천장 구석에 매달린 사마귀 아저씨의 까칠한 날개 사이로 분홍빛 코스모스 향기가 아른거리”²⁷⁾는, 들판과 햇살, 짙레나무 열매, 사마귀와 코스모스 같은 가을 풍경과 그 기억을 통해, 겨울을 살아내는 존재들의 힘이 인간 삶에 전이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23)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6, 14면.

24) 권정생, 『금복이네 자두나무』, 『깜둥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143~156면.

25) 권정생,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분도출판사, 1985.

26) 권정생, 『달개비꽃들이 읽은 편지』,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햇빛출판사, 1985.

27) 권정생, 『코스모스와 사마귀』, 위의 책, 81, 89, 91면.

어울리는 세상의 전형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다.

『삼거리 마을 이야기』에서는 골목길에서 개들이 뛰어 놀고, 지붕 위에서 수탉이 뼉을 치며 울고, 흙벽으로 된 뒤주엔 쥐가 구멍을 뚫어 놓고, 몇 십 년씩 묵은 지붕 이엉 깊숙한 곳엔 능구렁이가 집지기로 살고 있으며, 술가지 나뭇가지 속엔 족제비가 숨어 살고, 뒤산에랑 앞산에는 늑대도 살고 오소리와 너구리도 사는 마을을 그렸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마을의 가장 으스스한 골짜기 독짓골에 사는 툇제비 셋이다. 온갖 생명이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어 함께 사는 마을의 툇제비는 사람을 절대 죽이거나 먼 데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조금 심하기도 하지만 재미로 끌고 다니며, 오히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가진 돈을 몽땅 써버리고 곤드레 만드레가 된 말쑥꾸러기 어른을 일부러 혼내 주기도 하며, 마을 아이들의 다툼에 관여하여,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만든다. 또한 싸움터로 끌려가 아이들과 가슴이 따갑도록 쉽게 우는 처녀애들의 사정이 궁금하여, 산을 넘어 싸움터로 가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자연과 사람과 마을을 파괴한 전쟁을 저주한다. 그리하여 설날도 대보름날도 전쟁이 모두 데려가 버린 마을 뒷산을 등지고 그 너머로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 때, 따뜻한 초가집에 호롱불 켜고, 총각애들이 오줌누기 내기도 하고, 박서방처럼 주웠던 콩치고기를 몽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마을이 될 때에 툇제비들은 삼거리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툇제비가 사람과 함께 하는 세상이 권정생이 그리는 세계의 초상이다. 그 세계는 생기가 넘쳐나고 기지와 해학이 삶을 윤기나게 하며, 버림받은 존재들이 느끼는 소외, 망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치 강아지똥이 민들레와 빗물과 흙덩이와 만나 이루는 생명의 축가가 드높은 세계인 것이다. 그의 동화에는 이러한 세계가 아이와 같은 감성, 마을공동체의 심성 등을 매개로 구체화되어 있다. 탐마을 이야기꾼 권정생이 평생을 짓다 간 동화는 장르적으로 근대문학의 한 갈래이지만, 그가 창조해낸 이야기의 실상은 동화라는 형식의 전유를 통한 민속적 삶과 세계의 재창조에 있다 하겠다.

28) 권정생, 『삼거리 마을 이야기』, 위의 책, 105, 111, 135, 142~143면.

5. 맺는 말

권정생의 동화에는 근원적으로 민속적 삶과 세계의 원리가 체험에 기초하여 구체화된 문학적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권정생은 조탑마을에서 체험한 일, 몸소 겪어서 알게 된 농촌의 현실, 그리고 마을 노인들에게 들어 알게 된 많은 사연들을 토대로 그의 동화 세계를 펼쳐 보였다. 마을아낙네들과 할머니들의 애환과 곤궁을 함께 공감하여 풀어내고, 그들에게 불가능한, 그렇지만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동화에 담아내었다. 그의 동화 속 인물이나 주인공들은 온갖 삶의 내력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억되지 못한, 그래서 기록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이야기를 통해 그 존재들이 역사의 주인이나 제 삶의 주인으로 재현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발화자 혹은 창조자로서 권정생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재현하는 존재이며, 그러한 주변적인 존재들을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는 서술자로서 존재하는, 동화의 무당이다.

권정생의 이야기에는 그가 체험한 전쟁과 피난, 가족과 마을공동체의 해체, 뿌리없이 흔들리고 떠도는 삶과 존재에 대한 절실한 슬픔 등이 인물이나 서사 세계, 또는 제재와 배경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원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과 생의 의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와중에,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회구가 이야기들의 구조 속에서 강렬하게 재체험되고 있다. 질병처럼 엄습한 사회와 역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통찰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내쳐진 존재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 등을 이야기의 형식 속에 되살려 놓았다. 그리하여 권정생의 이야기들에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야기된, 자연과 공동체의 해체와 재편에 대한 비판이 물씬하게 담겨 있으며,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구체적인 형상과 생명력으로 표현되어 있다.

민속신앙은 그저 관념 속에 머물거나 의례로 그치지 않는, 생활과 자연에 긴밀하게 연결된 살아 있는 실체였다. 뒤꼍 뽕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산과 들의 못 생명들에 그 정성을 담아, 생명을 대상화하여 그냥 포식하기 위해 기르거나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생명을 보살피고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신앙이다. 그가 그리는 신은 전쟁을 반대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비판하며,

우리네 삶, 바로 거기에 함께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좀 더 평등하고 친밀해진 민속 세계의 공동체 모습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권정생의 동화를 관통하는 민속적인 것들에 주목하여 그 세계의 의미와 그것이 재현된 권정생 동화의 세계성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그의 이야기는 동화라는 장르를 빌어, ‘민속’을 소재로 하여 재창조한 조선 백성의 한 많은 역사·문화·신앙의 보고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그의 이야기에는 기독교를 내파하는 민속신앙의 다원성이 해원과 상생의 서사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역사적인 비극이 민속적인 공동체의 체험에 기초한 문학적 형상으로 획득되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 전통과 역사의식에 바탕한 작가의식이 구현되어 있다. 특히 그는 공식적인 역사에서 이름없이 사라져간 평범한 우리 어머니·누이·이웃의 삶을 현장의 언어로 일구어 내었다. 권정생의 기독교 신앙은 어머니가 마을공동체의 신앙 전통과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민속신앙의 정서와 교감하고 있으며, 그의 삶에 온전히 녹아져 사람과 사회,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요컨대 권정생의 동화를 관통하는 민속 세계는 마을공동체의 이상을 이루려는 동화적 상상의 세계로 구상되어 있다 하겠다.

■ 주제어 : 권정생, 동화, 민속, 무속, 무당, 재현 등

<참고 문헌>

- 권정생,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 권정생, 『깜등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1998.
- 권정생, 『달맞이산 너머로 날아간 고등어』, 햇빛출판사, 1985.
- 권정생,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분도출판사, 1985.
- 권정생, 『빌뱅이 언덕』, 창비, 2012.
- 권정생,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1978.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6.
-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산하, 1991.
- 권정생,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산하, 1994.
- 김용락, 『빌뱅이언덕 밑 오두막에 살면서』, 『녹색평론』 95, 녹색평론사, 2007.
-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11.
- 이계삼, 『이 땅 ‘마지막 한 사람’이었던 분』, 『녹색평론』 95, 녹색평론사, 2007.
- 이오덕·권정생 외, 『흰둥이와 검둥이』, 산하, 1995.
- 이원준, 『동화나라에 사는 종지기 아저씨』, 권정생, 작은씨앗, 2008.

[Abstract]

An Essay on the Folkloric Representation in the Jeong-saeng Kweon's Fairy Tale

Lee, Young-ba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aspects of folkloric representation in fairy appearance of jeong-saeng kweon's literature(He is a famous fairy tale writer in South Korea).

His fairy tale is mostly comprised of the folk materials in his works. However, it is not folk reality but the representation of folk. Also, it is the modern variation of folk culture. It is mostly the Christian transformation of folk religion, or shamanic narration and narrative of the historical tragedy and wretched character in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In the last analysis, jeong-saeng kweon is the fairy tale writer of typical characteristic of cultural hybridity in the history of korean fairy tale. His works have the traditional and modern features. Therefore, they can be defined as the reconstruction of cultural memories in the hybrid combination of folk and modern times, in the conflict of sio-cultural interests and desires etc.

【Key words】 jeong-saeng kweon, fairy tale, folklore, shamanism, shaman, representation

이영배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교수

(760-74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전자우편: lyb70@anu.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8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